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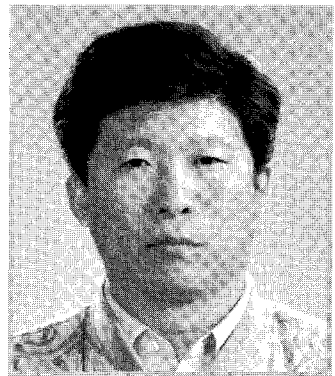
농가들도 생존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고심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타성에 젖은 사고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누가 해주길 바라고 내가 아닌 남이 하겠지 하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 참여를 한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할 때이다. 우리 육계인들의 성숙된 사고와 의식을 기대해 본다. **양계**

사료에서의 거출 다시 한번 생각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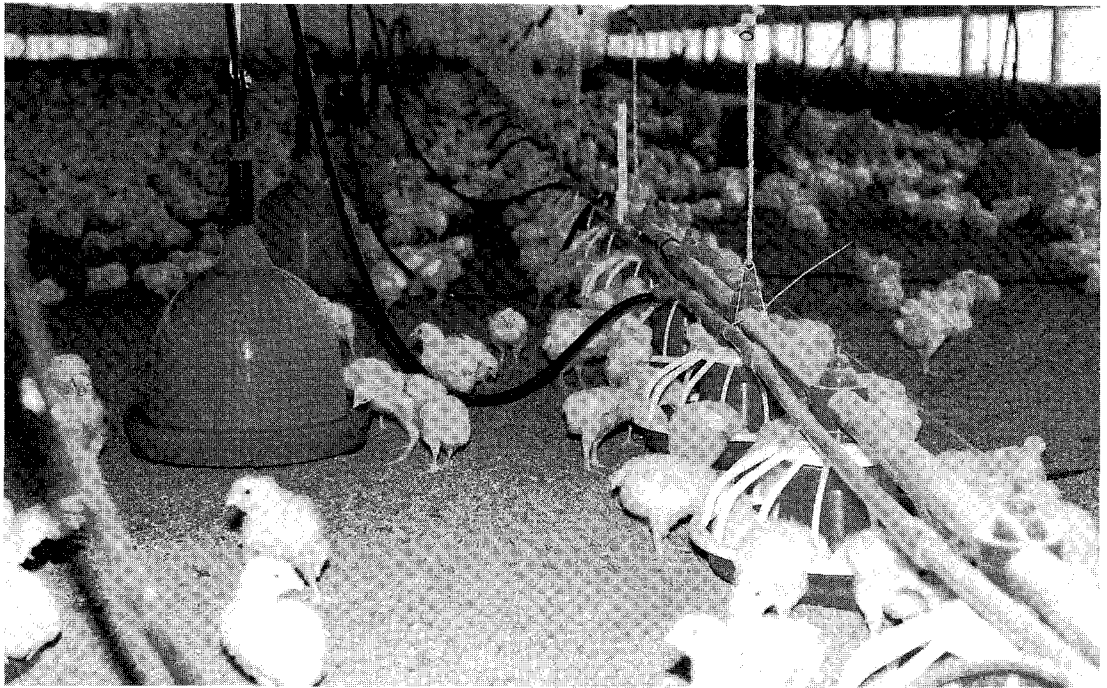
이 광 초 경인축산 대표

1990년대 이후 계열화 사업이 발전하며 육계업은 단순 1차 산업에서 계육을 가공하는 2차산업으로 변천해왔으며 더 나아가 3차산업인 유통 및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복합 산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제 육계산업은 육계 생산만으로는 존재하기가 불가능해졌고 가공공장 또한 육계를 구매하여 도계가공만 하는 2차업만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육협회가 탄생하게 되고, 육계 생산 및 사육분야에 대해 양계협회와 관점을 달리하면서 양협회간에 보이지 않는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육계업의 발전과 사업의 영위는 최후 소비자가 계육을 소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육된 육계를 가공공장에서 얼마나 신선하고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어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생산하느냐에 따라 육계산업이 성장할 수 있으며, 2차산업의 경영마인드를 가진 도계장에서 생산까지 주도하려 하는 것은 육계사육의 특성상 대량생산 및 종업원에 의한 대리생산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질병발생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육계산업은 기업형태의 도



계 가공 판매와 전업으로 이루어지는 육계생산이 전문성을 갖고 서로 어우러져야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조금에 관한한 어느 한 협회에 대한 일만이 아니라 양계협회나 계육협회나 모두가 필요한 일이다. 단지 지금의 갈등은 누가 생산자 단체냐에 대한 정의에 힘을 낭비하고 있는 듯 하다. 두 협회가 가공전까지의 생산단계와 그이후의 도계가공 유통단계까지의 업무를 분담 추진하면서 양 협회간의 분야별 자조금관리 위원회를 두어 자조금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협의를 진행시키며 의무 자조금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자조금은 단순히 소비홍보 등의 단순한 목적에 기울어 있었으나 진정한 자조금의 사용처는 안정된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마땅하다. 지금까지 정부의 도움이나 정책에 의하여 추진되던 생산조절이나 생산자의 피해 구제를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자조금에 의한 내부적인 해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자조금 거출방식은 현재 도계장에서 거출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으나 원천적으로 원료를 구입할 때 모금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수월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양계, 계육협회 공히 구매처로 이용하는 사료 대금에 자조금을 부과하여야 공정할 것이며 이는 타 축산단체와도 연계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 사료에서의 거출문제가 사료업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었지만 양계가 공산품이 아닌 생물이기 때문에 뚜렷한 합일점을 찾는다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보다 합리적인 방법인 사료에서의 거출을 다시한번 모색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의무자조금 뿐만 아니라 임의자조금도 조성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다방면으로 자조금 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양계**

세계의 시장은 준비된 자의 몫

조 현 성 (주)하림 사육사업부장

어렵게만 여겨지던 의무자조금 사업이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로드-맵이 그려지고, 대한양계협회와 계육협회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됨으로 본격적인 자조금사업은 향해가 시작되었다.

우리 양계인이 가야할 의무 자조금 제도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특정사업의 수행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자조금이란, WTO 출범과 FTA 체결 등 수입개방 상황에서 양계농가들이 스스로 국내 양계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자발적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제도이며, 이익집단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여러 형태의 자조적 재원(회비, 찬조금, 기부금 등)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1.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하지만 운영상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고 이 제도가 잘 진행될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는 듯 하다.

첫째 : 자조금의 거출 문제인데 2005년부터 농가들이 도계장에 닭을 출하할 때 닭 1수당 3원씩